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제4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 폭력으로 지구촌이 얼룩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에서는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폭력으로 갈등과 위기를 타개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검질긴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설 명절에도 서로의 얼굴을 마음껏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감사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더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명절이라 한결 더 쓸쓸한 독거 어르신과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 31:11,13 인도자
- ▲ 교 독 문 36. 시편 90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박범희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 ▲ 성경봉독 창 31:43-50 1부:인도자/2부:하정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함 께

2부 특 송 오직 주만이 박다니엘 청년
 말씀 **갈르엣** 김기석 목사
 거둬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을 시인 하고,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대화와 양보를 통해 화해 하며, 평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다 함께 : 아멘. 주님, 갈등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예 외면하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불의와 반목으로 앞길이 막막할 때, 하늘의 마 음을 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의지하여, 먼저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서로 어우러지는 잔치를 열고 기쁨의 찬 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안홍숙	정택중	이재훈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